

玩月會盟宴 研究(二)

金 鎮 世*

1

筆者는 「冠岳語文研究」 第 2 輯에 이 「玩月會盟宴」의 初頭部分인 卷50 까지의 梗概를 發表한 바 있었다. 이번에는 그 나머지 部分인 百三十卷 全部를 紹介하려고 했었는데 亦是 紙面의 制約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不得已 卷百二十까지의 梗概만을 紹介하고 나머지 部分인 60卷은 다음을 期約할 수밖에 없음을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2

여추밀(원홍)이 張家에 와서 세린의 病勢를 물고는 자기 딸의 허물을 사과하였으나 세린은 여소저를 다시 보지 않겠노라고 잘라 말하였다. 張公은 자기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였으나 여추밀이 한발 後退하여 세린과 程府와의 成婚을 諒解하매 張公은 마음이 흐뭇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인중이 外祖母의 병문안을 다녀오겠노라 하고는 그곳에 가지 않고 몰래 집에 머물면서 체찰(인성)과 이소저를 저주하였다. 인웅이 그것을 눈치채고 말렸으나 인중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龕打하였다. 인웅은 頭骨을 傷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소부와 학사 태우 등은 인웅이 落傷하였다 함을 이상히 여겼고 이러한 事情을 알고 있는 소씨는 아들인 인중의 行悖를 근심하는 한편 그러한 患亂을 겪으면서도 큰형과 형수를 위하려는 인웅의 몸가짐을 꼬불꼬불 不滿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때 遠行하였던

* 人文大 副教授 (國文學專攻)

인명이 돌아왔다. 그와同行하였던 兩叔父는 先山에 둘러 一望後에야 還家하리라는 것을 말하였다. 소씨는 몹시 不安해 하다가 친정 母親의 想候를 일컬고 근친하였다.

서태부인의 언니가 범處士에게 出嫁한 뒤로 40년이 지나도록 서태부인과 떨어져 지내다가 서울에 오게 되었다. 이에 서태부인은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그곳에 갔다. 화부인은 이소저에게 產點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과 特히 녹빙 계월 등 두 婦子를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소부에서는 諸公들이 근친한 소씨에게 그녀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함을 이르고 인성과 이소저의 지극한 孝誠을 좋게 받아들이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소씨는 그 忠告를 가벼히 여길 뿐 아니라 몸이 不便하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서부에 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계월로 하여금 인홍과 인영에게 丸藥을 먹이게 하여 혼자 程府에 남아 있는 소화부인의 精神을 이 소저에게서 멀리하게 하고는 틈을 타서 이 소저를 害하게 했다. 그러나 이 소저는 늘 解毒藥을 준비하고 다니면서 그 고비를 넘겼다.

소씨가 인중을 설주부에게 보내어 미리 約束하였던 毒藥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동안에 이소저는 順產生子하였다. 소씨는 毒藥을 產後에 먹는 藥이라면서 이소저에게 권했다. 이소저는 미처 解毒藥을 준비치 못한 티이라 구토를 하는 척하며 그 藥을 엎지르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계월과 녹빙은 미리 준비하였던 주파의 아들과 이소저의 아들을 바꿔치고 이소저의 新生兒는 뒷산에 갖다 버렸다. 그러나 天佑神助로 그 아이는 월난과 홍소에 의해 구해졌다.

인웅이 서부에 갔다오다가 한 道仙을 만났다. 그는 인웅에게 家內에 變故가 있으니 그것을 잘 處理하라고 일렀다. 절학봉 밑에서 인웅은 홍소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조각 글을 엎고는 본府로 돌아와 이소저에게 毒藥을 먹이려는 母親을 붙들고 그 失德을 諫하는 한편 이 소저 옆에 누인 新生兒가 주파의 아들임을 말했다. 소씨는 아무말도 하

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월난이 이소저의 아들을 안고 와서 주파의 아들을 둘러 보내니 이소저는 新兒를 보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했다. 이를 본 인옹은 호뭇함을 느끼고 母前에 나아가 큰형과 형수의 至孝를 말하며 母親의 惡行 그치기를 간곡히 말했다. 그러나 소씨는 그녀가 당하고 있는 魁地와 인성 夫婦만을 사랑하는 程府를 욕하며 그 뜻을 고치려 하 않았다. 이때 魁士와 경조등이 太州에서 돌아와 집안에 있었던 일을 스치고 해연해 하였고 서부에 갔었던 화부인등이 또한 失色을 하였으나 걸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태부인이 新生兒의 이름 짓기를 재촉하나 魁士는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거듭 그것을 재촉하는 바람에 魁士는 어기지 못하여 그 이름을 龍龍이라 지었다.

인팡은 아내인 장소저가 죄를 지은 바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녀가 淑女임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녀의 父親인 張公이 자기의 원수와 같은 터이라 그런 感情으로 因하여 그는 그녀를 멀리하고 있었다. 그가 病席에 누워있던 때 장소저는 친정에 가고 없어서 소씨가 대신 그의 병 간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팡은 그것이 못마땅하여 장소저의 乳母와 侍女를 매질하여 그 분풀이를 하였다. 이럴수록 태부인과 魁士公은 그를 걱정하고 마침내는 그를 소소저의 魁所에 가서 자도록 했다.

10일에 元帥에게서 捷報가 있었다. 上은 크게 기뻐하였으나 南狄이 아직 降服치 않고 있어 그를 京師로 불러올리지 못했다. 元帥 집에서는 모두들 기뻐하였으나 인중과 소씨는 元帥의 名聲이 들어남이 不滿이었다. 이들은 元帥의 夫婦를 없애지 못해 안타까워 하였으나 집에 남아 있던 이 소저는 이런 눈치와는 아랑곳없이 소씨에게 孝誠을 다할 뿐이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소저는 生男을 하였다. 집안에서는 모두들 그 新生兒가 龍龍에게 나름이 없다고 기뻐하였다.

인중은 여원홍에게 張家의 세째 아들과 정소저의 일을 과장하여 말하

였다. 그러자 여家에서는 이 사실을 天庭에 진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는 여원홍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물어두기로 하였다.

張公은 여추밀(원홍)에게 자기의 第三子와 정소저의 婚事에 대하여 諒解를 얻고 程府에 가서 請婚을 하였다. 이때 경조공은 大怒하여 아들인 인홍이 탕자와 사귄다 하여 인홍에게 笞杖을 가하였다. 이것을 본 소부공은 인홍이 그 일과는 無關하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경조공은 좀처럼 누구더지지 않았다.

이때 張公은 소부공에게 그가 여家에 가서 그 婚事에 대해 양해를 얻었다는 말을 하고서는 허둥지둥 돌아갔다. 경조공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딸의 패륜을 생각하고 그녀를 죽여 없애는 편이 나으리라 決心하였다. 그가 딸에게 毒藥을 주고는 女道잃은 죄를 추궁하니 그녀 또한 父親의 뜻을 어기려 하지 않았다. 이에 인광 인경 인옹 등이 달려들어 그 악그릇을 앗고 그 일이 不可함을 諫하였다. 處士 또한 거듭 해유하자 그제서야 경조공은 그 뜻을 굽혔으나 딸에게는 어머니 혼실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張公이 집에 돌아가 自身이 程府에서 무대접받은 바를 말하니 朴氏는 平素의 感情까지를 것들여 程府의 육을 하며 악을 썼다. 이때 연부인은 朴氏의 言辭가 혐합을 나무랐다. 한편 세린은 말썽의 그 그림을 업은 후로 그것이 정소저(성념)의 것인 줄 알고 想思하였을 뿐 한번 서로 만난 일도 없었는데 여家에서 공연히 자기를 해하려 한다 하고 화를 내었다.

세린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張公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날 程府에 가서 그것을 사죄하였다. 處士는 그것을 不問에 불이고 인광을 불러 岳丈에게 獻杯케 하였다. 平素에 同席하기 조차도 꺼리던 사위인 인광의 술잔을 받은 張公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집에 돌아간 張公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으나 장소저는 자기

男便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들릴 人物이 아님을 말하였다. 이때 연부인은 세린에게 지난 일이 큰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의 몸가짐에 조심하라고 타일렀다.

정소저가 친정에 돌아와 장소저가 오래도록 病席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는 인광의 無信함을 탓하니 處士가 그 말을 듣고는 인광의 몸가짐을 경계하였다. 그는 또 인광으로 하여금 장소저에게 間病의 글을 쓰게 하고는 웃 한벌을 마련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것을 받은 張家에서는 모두들 기뻐하였으나 장소저만은 그것이 남편의 本心에서 울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글픈 한숨을 쉬었다. 이무렵 태부인이 장소저에 대해 걱정을 하니 處士는 그녀의 痘勢가 회복되는 데도 곧 려려울 것임을 말하고 母夫人的 心慮를 덜게 하였다.

서천절도사인 王축이 가렴주구를 심하게 하니 그곳 人心들이 흥흉하여 절 뿐 아니라 妖徒들이 이곳 저곳에서 활개를 치게 되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王축은 급하게 그 사정을 上表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인광으로 하여금 그곳 순유사를 命하고 그 지방을 순무도록 하였다.

張府의 朴氏는 딸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음에 짜증을 내고 자기가 먼저 죽어 딸의 고역스러움을 보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을 쳤다. 이에 며느리인 정소저는 연부인과 相議하여 朴氏를 해유하는 한편 장소저가 임신 8개월임을 말하였다. 이때 朴氏는 자기가 직접 딸의 태기를 확인하고는 누구리겠다.

장소저의 병이 낫지 않자 張公은 處士를 찾아가 걱정을 했다. 이에 處士는 며느리를 친애하고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면서 안심케 하였다.

이때 소위공이 張府에 와서 그가 본 乾象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인광과 장소저의 主星이 보이고 장소저의 애운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왔으니 오래지 않아 그녀의 厄이 없어지게 되리라 하였다.

소위공이 장소저의 병을 보고 藥을 준비해 주는 한편 鄭士가 每日같이 그곳에 가서 그녀의 병석을 보살피자 장소저의 병세에 差度가 있게 되었다. 이때 張公은 鄭士에게는 感謝해 하였으나 사위인 인광이 上命으로 遠地에 떠나면서도 자기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음에는 며 섭섭해 하였다.

장어사 의명공이 관서를 按察하고 無事히 돌아왔다. 朴氏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동안의 일들을 말하였다. 그녀는 인광에 대한 욕, 여 소저에 대한 욕 그리고 세린과 정소저의 일들을 들추어 욕하매 의명공은 脫冠解帶하고 사죄하니 朴氏는 그 이상은 추궁치 않았다. 이에 의명공은 동생들에게 힘써 바르게 살기를 타이르는 한편 정인중은 간웅이라 그와는 交分을 두터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 그는 동생인 장소저의 病席에 가서 看脈한 다음 정성껏 구호하니 그녀는 一望이 지나지 않아 起臥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妻家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경조공과 소부공 등은 張公과 세린에 대하여는 꺼리는 바 있었으나 의명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남지방의 진유 겸 초토사인 대원수 참정 정청계공과 체찰사인 정인성은 그 지방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때 체찰사의 늄름함을 보게 된 초란(양주자사 만안의 長女)은 그를 잊지 못하여 지내다가 여동생인 성난과 상의한 끝에 인성을 따르기로 決心하였다. 그녀는 男裝으로 차려 입은 뒤 아버지의 千里馬를 훔쳐 타고 사랑을 찾아 집을 뛰쳐 나오고 말았다.

大元帥와 體察은 水陸으로 賊徒들을 무찔러 그곳에 拉致되어 온 사람들을 教化하여 각각 고향에 돌아가 亂事에 힘쓰게 하는 한편 女子들은 모두 그 父母를 찾아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석절도의 딸과 만안의 딸이 있어 체찰을 생각하고 그 救命大恩을 갚겠다 하였다. 그녀들은 몸을 바쳐 체찰을 따르겠다고 求愛하고 나섰다. 그러나 체찰은 風化를 이르고 그녀들의 마음을 고치려 하였다. 체찰은 仁義之行으로 그

녀들을 救한 것이지 愛慕之情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님을 거듭 타일렀으나 그녀들은 쉽사리 그 마음을 들이키려 하지 않았다.

체찰에게 거절을 당한 석소저는 그 父親께 돌아갔으나 만소저는 끝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佛門에 의탁하여 정체찰과의 結緣을 發願하겠노라 했다. 이에 정체찰은 만소저의 父親인 만경을 만나 그러한 사정을 말하고 그로 하여금 名山大刹을 두루 찾게 하였으나 만경은 딸을 찾지 못했다.

그해 가을 大元帥는 表를 올리고 安南으로 옮겨 해유하였다. 이때 安南의 승상인 맹선은 降伏함이 옳다고 하였으나 王은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승상을 귀양보내고 마니 아무도 降伏함을 말하지 못했다. 王은 쥐라산에 있는 능운사를 찾아 나라의 사정을 말하고 싸움의 勝敗에 대하여 물었다.

王이 싸움을 決心하였을 때 호삼기는 그 싸움이 無謀함을 말하였다. 이때 王이 그를 處刑하려 하자 호삼기는 그 나라의 將帥들을 大元帥麾下의 將帥들과 接戰시켜 보고 萬一 勝戰하거든 자신의 목을 베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 따라 王은 그의 將帥를 싸움에 내보냈으나 곧 敗하여 生捕당하고 말았다. 王은 傷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둘우었으나 그는 元帥의 計略에 빠져 마침내 生捕를 당하고 말았다.

한편 체찰은 경성으로 가서 그곳의 東宮과 文臣들을 모두 다스리되 한 사람도 傷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체찰의 뜻대로 順從하였으나 오직 南王의 次子인 안농군만이 그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모든 장수들은 그를 곧 處置하자고 하였으나 체찰은 南王이 돌아온 뒤에 이 일을 해결하겠노라 하고 미루어 두기로 하였다.

體察의 寢所에 刺客이 들었으나 체찰은 危機를 모면하여 그의 칼을 빼았고 그를 부드럽게 타일렀다. 이에 感動한 刺客은 그가 돈에 팔려왔음을 實吐하였다. 이무렵 元帥는 星座를 살피고 體察에게 危害가 있음과 皇城에서 刺客이 왔음을 걱정하였으나 體察은 그 刺客이 소씨와 인

종과는 無關한 것이라 말하면서 父親의 心氣를 편하게 하였다.

南王이 힘으로 元帥를 무찌르고 싶었으나 미치지 못하매 그는 當年十五歲인 딸 해릉공주를 앞세워 美人計를 꾸미려 하였다. 이때 인중이 보낸 刺客인 단이수가 南王과 結托하고 體察을 害하려 하였다. 그는 改容丹을 먹고 體察의 얼굴로 바꾸어 公主의 寢所에 들어가 하룻밤 雲雨之樂을 이루고 그녀에게 信物을 주며 다음날 明陣으로 찾아오라 하였다. 단이수는 본래의 자기 얼굴로 고치고 해릉공주를 피어 明陣에 潛入하였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體察에게 感계 하고 또 體察로 하여금 그녀에게 慾惑케 하려 하였으나 體察은 그녀를 교유하여 老將 조윤으로 하여금 그녀를 南王에게 돌려보내게 했다. 父王에게 돌아간 公主는 體察이 仁義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明陣이 굳음을 말하고 南軍中의 妖術師를 찾아 원통하게 죽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게 된 南王은 차라리 그 딸이 죽어서 돌아온만 같지 못함을 恨하였다.

南王이 그 아우인 경양군을 보내어 公主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體察의 罪를 물으매 元帥는 한때 體察을 罪人으로 몰았으나 老將 조윤과 단이수 그리고 소씨의 婦子인 녹빙에게까지 擴大시켜 그 事件의 真相을 조사한 結果 마침내 體察의 潔白함을 確認하였다. 그 뒤 元帥는 소씨와 인중이 體察을 害하려 하였다는 것과 體察의 아내인 이소저의 新生兒를 그들이 害하려 하였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體察은 자기가 直接 보지 못한 일이라 하면서 母親과 아우의 罪過를 허물하려 하지 않았다. 이럴 무렵 南王은 降伏與否를 決定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直諫으로 田里에 내쫓겼던 승상 맹견이 東宮을 따라 그곳에 왔다가 나라와 百姓을 위해 降伏함이 옳다고 다시 力諫하자 南王은 그 뜻을 받아 급기야 降伏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程府에서 장소저가 男女의 双兒를 낳으니 장가에서는 勿論 程府의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이무렵 소씨는 이소저를 구박하다가 마침내 난타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소저가 晨省에 참여치 못하게

되자 태부인은 處士를 보내어 診脈케 하고 그 病勢에 대해서 격정을 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들 이소저를 칭찬해 마지 않으니 그럴수록 소씨는 인성夫婦 없앨 決心을 굳히곤 하였다.

교한필(공주의 아들)의 부인인 여씨는 奸惡하여 호씨가 生男하였는데도 그 아들을 바꿔치고 숙난소자(주소자)로 호씨의 女兒라 하였다. 그녀는 물론 호씨를 親母라 생각했고 또 호씨도 그 소자를 親女로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자라던 숙난소자는 누설에 걸려 취봉산 황장에 安置케 되었는데 이때 여씨는 그녀를 폐하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게 된 것을 몹 씨 憎스럽게 생각하고 지냈다. 그런데 이 무렵 여씨의 조카인 윤경주가 주소자를 취하려고 行計를 하고 있었다. 그는 力士들을 動員하여 明火賊인 것처럼 꾸며 그녀를 拉致케 하고 그 자리에 그가 나타나 威嚴으로 賊徒들을 물리친 다음 그녀를 자기집 벽처에 데려다 두고 情을 도탐게 한 후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려 하였다. 그 計劃은 행하여졌으나 일이 그릇되어 주소자를 拉致하여 간다는 것이 그만 그녀의 婢子인 채 월과 바뀌고 말았다.

先是에 주명선이 致仕하자 아들인 평양후 주성과 禮部尚書 주필은 취봉산 五里許에 亭子를 짓고 그곳에 그들의 父親을 모시고 있었다. 이무렵 주수량이 程處士를 請하자 處士는 아들인 인경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船遊를 하였다. 이때 인경은 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통해서 인경은 주소자가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금 급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꿈대로 교가의 장원에까지 그녀를 찾아갔다. 程處士는 그곳에서 人事不省이 되어 있는 소저를 發見하고 인경으로 하여금 구호케 했다. 인경은 그녀가 자기의 꿈에 顯夢 되었던 女人임을 알고 놀랐으며 지극 구호하였다.

한편 윤경주는 拉致한 女人을 두텁게 대접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 女人은 자기에게 온 飲食에 昏迷丹이 섞이어 있음을 알고 그녀를 감시하는 婢子에게 먹이고 요행히 그곳을 脱出하였다. 그녀는 곧 禁

門의 북을 울리니 오위도총사 광정주가 그 사실을 살핀 다음 윤경주를 잡아들이게 하였다. 광정주가 이 사실을 다시 장상서(장현의 아들)에게 보내니 장상서는 上의 允許를 받아 處理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채월이 證人으로 나서서 윤가의 婢子들과 對質한 結果 교사마의 妻 여씨와 윤경주가 결려들게 되었다. 이에 윤경주의 父인 윤시랑은 파직이 되고 여씨는 海島에 친배되는 반면 여씨의 행계로 교사마에게 쫓겨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호씨가 生存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교사마는 장원에 가서 女兒를 찾은 한편 인경을 만나게 되어 기뻐하였다. 또 그는 곧 호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대리고 오도록 하였으며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다. 헤어졌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자 공주는 다시 정인경 보기률 보챘다. 교사마가 程處士에게 허락을 받고 인경을 다리고 오니 공주와 호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를 新房에 案內하고 그들을 窺伺하였다.

장손팔이 宮中태감 진습의 아우인 진탐을 죽이고 改容丹으로 진탐의 얼굴로 바꾼 뒤 그 형에게 한 서간을 주었다. 그것은 皇后를 없애라는 内容이었는데 그는 교묘히 고한필의 동생인 교정필이 그에게 주는 것처럼 일을 꾸미고 있었다. 이 사실이 탄로가 되었을 때 上은 교家 兄弟의 忠誠心을 잘 알고 있는 고로 이를 믿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연루된 宮女 비계의 招辭가 있어 마침내 교家 兄弟를 모두 잡아 가두기 위해 이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자 교소저는 天門에 북을 울려 아버지의 罪를 代身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금오 조세창은 여러가지로 調査한結果 그 書札이 고한필의 筆蹟이 아님과 또 비계와 오강이 장손팔의 계교에 따른 것임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上達하였다. 이에 上은 교소저의 孝心에 感動하였을 뿐 아니라 교사마 兄弟의 忠誠心을 再確認하고 그들을 放送하도록 하였다. 교家의 兄弟들이 풀려나자 賀客들이 모여들었으나 교사마는 明白한 伸雪이 없음을 빙자하여 待客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程處士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欣快히 處士를 만나 즐

겼다.

程處士의 뒤를 이어 인경이 그곳을 다녀갔는데 그때 교소저는 그凶賊들을 잡기 위해 婢子인 열행과 채월에게 改容丹을 먹게 하고는 市井에 나아가 그賊徒들의 자취를 찾게 하였다. 아무렵 장손팔은 酒家로 돌아다니다가 벽암사로 向하려던 참이었는데 열행과 채월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들은 청허자 운수자라 하면서 장손팔에게 영수암이 좋다고 하면서 그를 그곳으로 誘引하였다. 장손팔이 머리를 깎는 節次에서 茶를 마시게 한 그녀들은 그 茶에다 복원단을 섞었다. 그것을 까맣게 모른 장손팔이 그 茶를 마시고는 본 얼굴로 돌아가자 미리 그곳에 待機시켰던 捕卒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장손팔 一黨이 잡힘으로써 진탐의 죽음과 진습의 움직임 그리고 주수량의 딸과 호씨의 아들의 交換 등이 밝혀졌으나 호씨의 아들의 生存與否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고 다만 비행을 국문하면 알 수 있으리라는 것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가려졌던 事件이 풀리게 되자 성모낭낭, 皇帝 그리고 안성공주 등이 모두 기뻐하고 교사마 兄弟들에게 衣冠을 주며 前처럼 忠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들은 그 罪名이 伸雪이 되어 기뻤으나 至極 慈愛하던 딸이 親딸이 아님을 알게 되자 그것을 몹씨 슬퍼하였다. 한편 한림수찬인 등지현 집에는 혜안이란 법사가 나타나 이제 天倫이 밝혀졌으니 그 주어다 기쁜 아이를 교사마에게 돌려보내라 하고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 말을 들은 등한림은 이 일을 任意로 할 수가 없어서 上前에 賽達하였다. 교소저는 至極한 父母의 慈愛를 받다가 千萬 뜻밖에 자신이 주씨의 딸이라 함을 듣고는 그만 살 뜻을 잃고 遺書를 남기고 自決을 피하였다. 그러나 多幸히 生命에는 支障이 없었다. 이 말을 들은 인경은 곧 그곳에 달려가 그 行動이 輕率함을 詰責하는 한편 부드럽게 慰勞하였다. 이때 등위공이 호씨의 아들을 데리고 교가에 왔기 때문에 서로 불들고 우는 관인데 또 주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女兒의 病이 있어도 관계치 말고 天倫을 通하게 하라고 要請하였다.

주處士가 소저에게 들어가자 소저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이에 處士가 藥과 침으로 다스리고는 교사마와 의논하여 소저를 別室로 옮긴 뒤 天倫의 情으로 타이르니 소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주가에는 兄弟들이 많으니 자주 이곳에 와서 봉양하리라 할 만큼 理性을 되찾게 되었다. 이 곳에 온 주소자의 母親인 유씨는 14년 동안이나 잃었던 딸을 다시 찾은 感慨를 억누를 길이 없었으나 딸을 그토록 잘 길러준 공주와 호씨에게 고마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공주와 호씨는 情들여 기른 딸을 돌려 보내기가 서운하기는 하였으나 또 한편 주處士 집이 名門임을 아는 고로 적이 시름을 덜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교사마는 벼슬에 뜻이 없어 여러번 辭朝를 上奏하였으나 상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벼슬을 듣우어 七闋老에 命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유부인은 딸과의 오랜 회포를 푸는 한편 인경의 人品이 뛰어남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냈다. 소저 또한 주가에서의 生活에 익숙해지자 교사마 집을 자주 來往하면서 한립과는 親男妹처럼 지냈다. 주處士는 마음의 안경을 얻게 되었고 또 인경을 請하여 자기집에서 첫 날밤을 지내게 되자 유씨는 이들의 新房을 窺視하면서 기뻐하였다.

운산 程府에서는 그동안 주소저를 現舅姑하지 못하매 태부인은 주소저 보기를 재촉하였으나 皇后가 미령하여 公主가 宮中에 들어가는 바람에 주소저의 新行이 늦어졌고 또 그 뒤를 이어 程體察이 온다는 消息이 있어 이 新行은 또 뒤로 밀렸다. 程府에서 體察이 온다는 바람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들떠 있었으나 소씨만은 그를 엄살치 못한 것이 恨스러워 痘席에 눕고 말았다. 인중 또한 그 兄을 없애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였으나 인웅은 母兄의 그러한 그릇됨을 感化치 못하여 아쉬워 했다.

한편 程體察이 水路로 돌아오다가 한 女人的 尸身을 發見하여 진지고 老將 홍윤으로 하여금 구호케 하면서 자기는 손수 藥을 써서 그 女人的 목숨을 救하였다.

형양 벽소산 은척곡에 소處士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인·제씨와 同舟

數十年이 되도록 血肉이 없다가 年近四十에 딸 명난소저를 낳고 8년 뒤에 아들 고현을 낳았다. 소저가 8세 때 소處士는 세상을 떠났다. 이날 밤 三更에 賊徒가 들어와 处士의 屍體와 奴婢 數人을 도적질해 갔다. 그 도적은 소處士가 자기의 父親인데 죽어서는 王墳에 묻히리라 했다. 이 사건을 宮中에서는 大逆으로 몰았고 또 그 때문에 处士의 葬禮式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때 程體察이 그곳을 지나게 되어 형양백은 이 사건을 程體察에게 부탁하였다. 한公과 體察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머리가 소處士에게로 돌아갔다. 이에 體察은 한公이 가지고 있던 書札과 賊徒들이 내놓은 書札의 글씨를 比較해 보고서 賊徒의 것이 가짜임을 밝혀냈다. 이때 소저一行은 亂을 避하기는 하였으나 父親의 屍身이 없어 精神을 차리지 못하다가 소화산의 賊徒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고 절 도사에게 그 屍身 찾아주기를 請하였다. 官軍을 움직여 그것을 찾기는 하였으나 소자는 母親의 病 구완에 지쳐 그만 쓰러져 혼도하고 말았다. 非夢似夢間에 소소자는 그의 父親을 만났다. 그는 딸에게 앞으로 厄運이 있으니 몸을 지켜 母親과 동생을 보살핌이 孝라 하고는 며나고 말았다.

왕삼이란 도적이 체찰의 심부름이라 하고는 소저를 誘引하였다. 途中에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소자는 그만 물에 몸을 던졌는데 그녀를 체찰이 救하게 된 것이었다. 소저를 찾는 侍女들에게서 그 소자가 소處士의 딸임을 알게 된 조장군은 喜悲가 엇갈렸다. 조장군은 소處士의 아내인 채부인과는 再從表間이 있기 때문이다. 이 事實을 체찰에게 말하자 체찰은 소소자와 男妹之義를 말하였고 조장군은 소저를 권유하여 체찰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들이 소저를 데리고 벽소산에 갔을 때 채부인은 危急之境에 있었다. 이들이 그녀를 救하고 체찰과 소저와의 結緣을 말하자 채부인 또한 許諾하며 체찰은 소處士의 靈福와 그 家族을 陣營으로 옮기고 出發準備를 하였다.

程體察이 서울에 돌아오자 곧 禮部尙書가 되었다. 온 家族이 歡喜에

넘치자 소씨도 겉으로는 반가운 表情을 지었다. 집안이 모두 모였는데 희염소저가 보이지 않았다. 張氏家의 三公子와 희염소저의 關係를 들은 인성은 서로 보지도 않은 處地인데 무엇이 嫌疑로우며 또 그녀를 空閨에 가두어 두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또 그는 張家의 三公子가 뛰어난 人物이라 結緣한다 하더라도 不滿스러움이 없다고 하자 그를 믿는 경조공도 그의 意見을 따르기로 決心하였다.

張氏家의 朴氏는 程府에 대하여 몹시 不滿스러워 하던 터인데 딸의 痘勢가 急한 때 程處士가 와서 친히 구완할 뿐 아니라 程府에서 딸의 과오를 容恕한다는 말을 듣고는 차차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게 되었다. 程府에서 장소저를 용서한다는 書札이 있으나 소저는 罪人임을 자처하고 世上에 나올 뜻을 가지지 않으매 올케인 정소저가 極口 說得을 하곤 하였다. 程體察(禮府尙書)이 張家에 나아가 還家한人事를 끝내고 장소저를 호행하겠다 하니 朴氏가 기뻐하였다. 장소저가 程府에 돌아오자 태부인은 그 雙兒를 보고 기뻐하면서 아비가 出征中이라 그들을 보지 못함을 섭섭해 하였다.

母親인 소씨가 몸이 不便하다는 말을 들은 인성은 아내인 이소저와 아들 몸창을 데리고 그 痘席에 갔다. 그때 그녀에게 미음이 나왔는데 그녀는 그것이 먹기 싫다 하고는 그것을 몸창에게 주었다. 그것을 먹은 몸창은 갑자기 피를 토하였다. 이에 소씨는 인중을 시켜 그 미음을 개에게 주게 하였다. 그것을 먹은 개는 곧 죽고 말았다. 이에 소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며 그 犯人을 찾으려고 刑具를 갖추었다.

녹빈과 계월은 왕술위와 通하면서 改容丹을 먹고 가짜 이소저가 되어 이소저의 忠婢인 언교로 하여금 金帛을 몰래 왕술위에게 가져다 주게 꾸몄다. 그리고는 무슨 不美로운 授受가 있는 양 언교를 다스리라 하니 이소저는 그 깁새를 알고 있는 고로 남 모르는 근심을 하였다. 언교와 왕술위를 다스리자 이들은 이소저가 그것을 보낸 것으로 복초를 하였다. 이에 인성이 이소저를 다스리려 하니 인중은 거짓으로 이소저를 발명하

고 나섰다. 인성은 家亂이 심상치 않을 것을 걱정하였다. 인성이 이소저를 다스리려 한다는 사실을 傳해 들은 소씨는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이 소저의 大孝를 말하기는 하나 왕술위에게 간 書札의 筆蹟이 이소저의 그것과 같음을 말하며 그 罪를 몽땅 이소저에게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張尚書의 아내인 程소저가 그 筆蹟이女子의 것 이 아니라 男子의 것임을 말하매 소씨는 일단 이소저를 풀어주었으나 이소저는 자신을 罪人으로 자처하고 婦子들이 숙식하는 곳에서 지냈다.

소씨는 인중에게 미혼약을 주며 왕술위를 救하도록 일렀으나 상서(인성)가 벌써 그를 죽인 뒤였다. 이 사실을 안 소씨는 사뭇 못마땅하여 家事を 혼자 處理하였다고 매우 나무랐다. 이에 尚書는 왕술위가 장손술의 一黨인지라 體察에서 돌아오자 곧 죽이려 하였는데 이번 일에 다시 겹치게 되어 죽인 것이라 했다. 소씨는 尚書의 夫妻를 죽이고 싶었고 이소저를 親庭으로 出家시키면 그녀가 오히려 便하게 지낼까봐 벽실에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뒤늦게 왕술위가 죽음을 당한 것을 알게 된 녹빙은 한바탕 난리를 피웠으나 소씨는 그녀를 내보내며 왕술위의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상서와 이소저의 일을 전해 들은 태부인은 곧 尚書의 죽고대죄를 풀고 이소저의 벽실거처를 거두라 하였다. 이에 尚書는 죽고대죄를 풀었으나 이소저의 벽실거처는 풀지 않았다. 程處士는 이 일과 관련하여 그 内幕이 풀릴 날이 있을 것이니 참아라 하고 無理한 일이 없도록 이소저를 타일렀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그녀의 벽실거처를 풀지 않는 尚書를 원망하였다. 죽고대죄를 풀 尚書는 母親 소씨에게 가서 사죄하고 答杖을 請하였다. 이때 소씨는 平素의 心術을 풀으려고 그에게四十杖을 가하였다. 尚書가 혼미한 狀態에 있음을 알게 된處士는 불문곡직하고 화부인으로 하여금 약을 다려 먹이게 하고 農省에도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이것을 알게 된 인웅은 慈母에게 가서 母親과 仲兄의 妖惡합을 말하면서 그러한 失德을 그치기를 哀願하였다. 이때 尚書는 인웅에게

험한 말을 함부로 하는 輕率함을 나무랐다.

홍적 장손탈이 잡하게 되었다. 그는 초사에서 인중과 왕술위가 자기와 同調하였음을 말하였다. 이에 程處士는 인중에게 바깥出入을 못하도록 嚴히 일러 두었다. 그래도 인중은 兄인 尚書를 죽이려고 몇차례 行計를 하였으나 失敗하였고 마침내 兄에게 덜미를 잡하고 말았다. 尚書는 조용히 그리고 간곡하게 그에게 타일러 그 마음을 고치도록 했다. 그러나 인중은 그 마음가짐을 쉽사리 고치려 하지 않았다.

화부인은 이소저로 벽실생활이 너무 혐함을 알고 여러가지로 도왔다. 소씨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行計하여 이소저를 연지에 넣어버리고 侍兒에게 改容丹을 먹여 이소저로 가장케 하고 또 윤난으로 하여금 男子가 되게 하여 이들이 越墻하는 光景을 보이게 하였다. 밖에 이소저의 侍兒 월난이 이들의 눈을 피하여 연지의 이소저를 전져 나오는데 인웅이 季父의 말을 듣고 무슨 까닭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곳에 왔다가 수수를 救한 것이다. 그는 다시 母親 앞에 나아가 母親의 失德과 인중 술위 그리고 장소팔의 妖計를 말하는 한편 伯兄인 尚書(인성)의 大孝를 말하며 母親이 마음을 돌리도록 極諫하였다. 그러나 소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인웅은 벽에 걸린 칼로 자신의 손을 자르고 母親의 罪를 代身하겠다고 법석을 부렸다. 이때 인성이 들어와 인웅의 不孝를 이르고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罪를 떨었다.

소씨의 父母인 소노공과 주태부인은 꺼 善良한 사람들이고 그녀의 兄弟들도 모두 어진 사람들인데 畢女인 소씨만이 奸惡하였다. 소부에서 모든 子姪들이 모였는데 오직 소씨만이 여기에 參與치 않았다. 이때 큰 딸에게서 소씨의 失德을 들은 소부 사람들은 경해해 하였으며 程府의 仁德을 높이 評하였다. 소부에서는 딸의 奸惡을 바로잡기 위해 家族會議를 열고 그녀의 改過와 녹빙 계월등 婢子들의 處置方案을 의논하였다. 주부인은 소씨나 녹빙 계월등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려서 녹빙과 계월등과 함께 지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소씨의 行計를 살피

게 하였다. 한편 주부인은 환후가 있다고 하며 소씨를 불렀다. 그런데 소씨는 녹빙을 보내어 자기가 가지 못함을 代身하였다. 이때 소부에서 는 도중에서 녹빙을 납치케 하여 옥에 가두고 말았다. 주부인은 다시 딸에게 아무런 消息이 없음을 탓하였다. 소씨가 이번에는 윤난과 계월의 母女를 보냈다. 그런데 이들도 中途에서 拉致를 당하여 獄으로 直行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일을 담당 한 창두들은 소상서의 嚴命이 있은 터이라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소상서가 소씨의 婢子들을 鞠問하였다. 녹빙과 윤난은 사실대로 복초하였으나 계월만은 끝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에 소노공이 다시 이들을 염문하니 그때에서야 모든 것을 自白하였다. 소노공은 이러한 사실을 곧 上表하려 하였으나 소상서가 그것을 말렸다. 일이 그렇게 번 거롭게 되면 문계공과 程상서가 禍를 입을 念慮가 있기 때문이라는 理由에서였다. 소노공은 자기의 딸때문에 老門인 程府가 亡할 뻔 하였다 하고 딸을 程府에서 영영 내쳐 그녀로 하여금 後惠이 없도록 해달라는 書札을 程府에 보냈다. 그는 回答에 따라 이 問題를 處決하리라 하였다 한편 소씨는 이러한 事情은 전혀 모르고 친정에 보면 婢子들이 行方不明이 됨으로해서 病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尚書와 인웅도 그러한 事實은 전혀 모르는지라 그저 母前에 나아가 함께 걱정을 도왔다. 이때 尚書는 이소저에 대한 태부인의 걱정이 크니 그녀를 내치자 하였으나 소씨는 內心을 참고 잠시 歸寧케 하라 하였다. 尚書는 태부인과 處士의 혀락을 받고 이소저를 보낸 뒤에 소씨의 寢所에 가서 母親을 想曲히 구완하였다. 그래도 소씨는 尚書 夫妻를 없앨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소부에서 주태부인의 患候가 急함을 通報하자 소씨는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떠났다. 이에 程府에서는 인증을 同行케 하였다. 소씨가 母前에 나아가자 주태부인은 딸의 손을 뿌리치고는 곧 階下에 내려가 석고 대죄를 하였다. 또 소노공은 칼로 딸을 배려 하였으나 오빠인 尚書가 그것을 말렸다. 그는 父親에게 참정공(문계공)과 인성에게 어지러움이

더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소노공은 内堂에 들어가 주태부인의 죽고대죄를 거두게 하고 인중의 母子를 데리고 추란정으로 가서 이들을 그곳에 가두고一切의出入을 嚴禁하였다. 소노공夫婦는 딸에게 衣帶를 풀게 하고 그녀의 죄를 추궁하였다. 녹빙과 계월의 초사도 읽게 하였다. 그러나 소씨는 그들과 無關함을 固執하였고 인성夫婦를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죽게 됨을 恨스러워 하였다. 소노공은 딸에게 藥을 먹여 죽게 하려 하였으나 인중이 뛰어들어 그 藥사발을 엎지르고는 담을 넘어 달아나고 말았다. 그는 달아나면서 어미를 救함이 孝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때 밖이 떠들썩하더니 월난이 들어와 사죄를 하였다. 이소저가 대죄중이었는데 오늘이 先考의 忌日이라 그곳으로 가다가 이곳에 이르렀노라 했다. 그녀는 母親의 急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노라 하면서 血書로 소씨의 허물을 容恕해 달라고 哀願하였다. 이것을 본 소노공夫婦는 이소저의 大孝를 일갈고 적이 마음을 늦추었다. 소씨가 벽실에서 自決하겠다 하고 요란을 피울 때 인성과 인웅이 달려가 그 母親을 구호하였다. 이러한 孝誠은 마침내 소부를 感動케 하였다. 昏迷狀態에 빠졌다가 精神을 回復한 소씨는 자기가 尚書의 무릎 위에 누워 있음을 알고 다시 살뜻이 없다고 몸부림을 쳤으나 尚書와 인웅은 至誠으로 諫하며慰勞하였다.

程尚書가 소부에 와서 母親과 함께 지내니 소상서가 소노공에게 請하여 소씨를 平居케 하고 그들이 程府로 돌아가게 하였다. 程府에서 소부의 消息을 듣고 인중이 집에 돌아오지 않음을 걱정하는 한편 태부인이 성녕소저의 패륜을 걱정하니 경조공은 죄송스러워 그녀를 張家三公子와 婚娶시키기로 決心하였다. 이에 태부인은 소부에 글을 보내어 소씨의 還家를 要請하니 소부에서는 感謝히 생각하고 그녀를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이 일로 이소저의 伸冤이 밝혀졌으나 程府에서는 소씨가 돌아온 뒤에 그녀를 부르기로 하였다. 소부에서는 소씨에게 救命을 내리고 주

태부인과 언니 그리고 오빠인 소尙書가 그녀에게 간절히 타이르니 소씨는 不孝를 일컬고 눈물을 흘리며 程府로 돌아갔다. 소씨는 程府에 돌아와 태부인에게 사죄하니 程處士가 친히 외서 堂에 올렸다. 소씨가 돌아오매 곧 이소저를 테려오도록 하였으나 이때 이소저는 病이 重하여 돌아오지 못하였다.

母親 곁에서 病子완을 하던 尚書는 宗廟의 祭官에任命되었으나 이상한 예감이 들어 母親의 患候를 上表하고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소씨는 嫢母인 한府의 주태부인과 通하여 行計함을 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人事不省인 것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때 소부에서 尚書兄弟가 와서 보고 來日 아버지가 이곳에 오시기로 되어 있다 하니 소씨는 父親의 뛰어난 醫術를 아는지라 인웅의 斷指血로 蘇生한 것처럼 일어나고 말았다. 程尚書가 母前에 가자 그녀는 갑자기 尚書가 차고 있는 칼을 빼어 自決하려 하였다. 그것을 말리던 尚書는 열 손가락에 傷處를 입었으나 그것은 關係치 않고 母親을 慰勞할 뿐이었다. 程尚書가 體察의 任務를 다하고 還京할 때 영릉도위 한부마의 慈堂인 주부인도 그 光景을 굿보려 간 일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外孫女인 양刺使의 딸 일아를 데리고 갔었다. 일아는 體察의 人品에 魅惑되어 그가 아니면 다른 家門에는 出嫁치 않겠다고 했다. 그뒤 그녀는 이것이 빌마가 되어 病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한부의 태부인은 먼저 소씨를 通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에 소씨는 程尚書에게 請하였다. 尚書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慈母의 心氣를 平安케 하기 위하여 이를 承諾하였다. 소씨의 書信을 받은 한부의 주태부인이 다시 한후에게 보카니 그는 하는 수 없이 程處士를 찾아 일아가 자기의 亡妹의 딸이라는 것과 自己의 母親인 주태부인이 일아를 過愛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尚書와의 結繩을 鄭重히 請하였다. 程處士는 어쩔 수 없어 母親의 許諾를 받고 그 婚事を 承諾하였다. 이러고 보니 한소저와 양소저가 同時에 尚書의 빈실이 되게 되었다. 吉日이 가까워지면서 한소저가 固執을 부리며 그 婚事를 꺼

혔으나 그녀의 父叔들이 程府의 仁德을 들어 說得하여 成婚케 했다. 婚姻날 尚書는 當日로 돌아오겠노라 하였으나 三日 親迎을 하도록 당부했었다. 그런데 그는 한부에서 數杯酒를 거후르고는 곧 운산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한부에서는 주태부인이 제일 섭섭해 하였고 程府에서 도 그 閨秀의 賢否를 몰라 또한 궁금해 했었다. 양소저(일아)의 婚姻을 주선한 소씨는 尚書가 當日로 돌아옴을 뭍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나 내색지 않았다.

소씨 以下 모든 여느리들이 오랫만에 태부인을 뵐시고 侍寢하는 날 程尚書는 소화부인에게 가서 故人을 추모하는 한편 담담한心思를 잊으려고 술에 취하여 이소저의 寢所에 들었다. 別로 願하지도 않는 再娶三娶를 한 그는 遠地에 나가 있는 父親에게는 한자 消息도 傳하지 못함이 죄스러웠던 것이다. 이러한 內心을 아는 이소저는 부드럽게 그를 대하였다고 그들은 오랫만에 夫婦로서의 同寢을 하였다.

한 양 두 소저를 同時에 親迎할 수 없는 程府에서는 먼저 한 소저를 맞이하고 양소저는 父親이 돌아온 뒤에 맞기로 하였다. 한소저의 뛰어남을 본 태부인은 遠地의 아들(청계공)이 그녀를 보지 못함을 섭섭해 하였다. 그런데 소씨는 양소저의 親迎이 늦음을 不悅하였다. 모든 식구들이 한소저를 보고 極口 칭찬하매 소씨는不安해 했다. 그녀는 한소자가 몸이 약하고 어리다는 理由를 들어 그녀와 尚書와의 同寢을 못하게 하였다. 양소저가 오기 前에 尚書가 한소저와 情이 들면 양소저의 處地가 어려워질까 두려워함에서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尚書에게 빨리 양소저를 親迎하도록 재촉하였다. 尚書는 遠地의 父親에게 書札을 보내어 일을決定하겠다 하였으나 소씨는 마구 보챘다. 이에 尚書는 소씨의 固執을 막짜르지 못하여 양소저를 親迎하였다.

그후 遠地의 父親에서 答書가 왔다. 한소저와의 成婚은 이미 알고 있던 터이나 양소저 취합은 아비가 許諾한 바 없으니 그녀의 生死에 대해서는 不關하겠다는 內容이었다. 이에 麼士公과 尚書가 사죄를 위해

교지에 감이 좋다는 意見을 모았으나 處士公은 태부인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代身 인옹을 尚書에게 달려 보내기로 하였다. 尚書가 父病을 일걸고 말미를 求하였으나 上은 不允하였다. 그러나 아비에 대한 孝心을 막는 것이 道理가 아니라는 衆臣들의 諫言으로 尚書는 一年의 말미를 얻었다.

先是에 선천문무사 程인광은 가는 곳마다 유화로 고유하여 人心을 부드럽게 하고 요얼들을 없애기에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소식, 遠地의 元帥(참제공) 그리고 體察의 消息을 몰라 궁금해 했다. 그러다가 體察의 捷報를 듣고 기뻐하였으나 그가 집을 떠날 때 장소저가 병이었던지라 그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조주刺使 채경환과 그의 부인(정국공, 상연의 종매)은 딸이 없어 恨스러워 하였는데 총부 한소저가 男女双兒를 낳으매 이들은 그恨을 孫女로 풀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斷產十年만에 한 딸을 낳게 되어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름을 혜순이라 했다.

운화선이 전에 당하였던 원수를 갚으려고 妖徒를 모았다. 그는 人家에 내려가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拉致하곤 하였다. 이때 채공은 親舊인 소처사의 葬禮에 참예하였다가 세 소저를 그 妖徒들에게 拉致를 당하고 말았다. 세 소저는 石穴에 갇혀 지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自決을 하려다가 父母에게서 받은 몸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天命을 믿고 강인히 목숨을 지키기로 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妖徒들은 이들 숙질에게 그들의 弟子가 되라고 보쳤다. 이때 순무사 程인광이 한刺使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石穴을 平定하고 이들 叔姪을 救하였다.

程순무가 山水를 유원하다가 한척의 彩船을 만났다. 그 배에는 형주刺使인 소공이 타고 있었다. 그는 程순무에게 兵部尚書의 教旨가 내렸으니 그것을 받으라고 했다. 程순무는 그 教旨를 받고 곧 上京하였다. 皇上 앞에서 程순무는 兵部尚書를 사양하였으나 上은 이를 許諾치 않았다. 程兵部가 岳丈인 張公을 푸대접한다는 理由로 程處士는 그를 내치

고 말았다. 그러자 程兵部는 叔父들에게 간청하여 그 故命을 부탁하였다. 昏定때 兵部와 장소저가 없음을 본 태부인은 그 까닭을 물었다. 경조공이 그 사정을 말하자 태부인은 處士에게 그의 故命을 내리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處士는 兵部를 불러 張公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를 용서하기로 하였다.

程兵部가 還家한 어느날 조금오가 程府에 왔다가 몸이 不便하여 누워서 쉬고 있었다. 그때 소씨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는 毒氣가 어리고 있었다. 程兵部가 그것을 모르고 먹으려 하자 조금오는 그 그릇을 쳐서 엎지르고 말았다. 금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왜 소씨가 자기를 죽이려 하였는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고 혼자 失笑하였다. 조금오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妻家에 자주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程소저는 이미 程兵部에게서 그 사정을 들은 터이라 母親인 소씨의 행동을 衷心스럽게 여겼다. 소씨는 인성(程尚書)을 해치려다가 如意치 않으매 사위인 조세창을 죽여 恨을 풀려 했던 것이다.

程兵部는 父親과 굳게 約束을 하기는 하였으나 岳丈인 張公에 대한 情이 쉽사리 내키지 않았다. 그는 张公을 至誠껏 섬기지도 않았고 또 장소저에게도 情답게 대하지도 않았다. 이에 處士는 또다시 그에게 장소저 옆을 떠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나 장소저는 그때 病이었던 터이라 소소저 寢所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장소저가 잠간 差度 있음을 안 張公은 程處士에게 딸의 歸省을 請하였다. 이에 태부인과 程處士는 이를 許諾하였다. 그런데 張家의 연부인은 이러한 일이決코 잘된 일이 아님을 말하고 張소저를 程府로 돌려보내는 한편 手書로 程兵部에게 그 아내의 死生問題를 뜻대로 處理토록 하라고 했다. 張家에 갔던 程府의 婢子가 朴氏의 육합을 듣고 와서 말하매 혜염소저와 화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도록 그녀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서 마침내

程兵部의 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울적한心思에 伯父를 도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處士公과 上의 承諾을 받고 곧 그곳으로 떠났다. 그는 伯父를 만나 자식이 없음을 悔하였다. 그때 伯父는 그에게 双兒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인광을 前日 순무를 끝내고 還家하였을 때 養子養女하라던 것이 바로 자기의 男女双兒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伯父의 경계를 들으며 程尚書, 인웅등과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이들 三公子는 채공자에게 毒藥을 보내던 일을 비롯하여 걱정스러운 집안 일을 서로 주고 받았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된 청계공은 소씨와 인중이 폐망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으나 하늘은決코 그들을 容納치 않는다 하고 子姪을 경계하였다. 청계공은 인웅에게 明春의 科場에 나아갈 일과 인성(程尚書)을 도와 집안과 나라를 지키도록 당부하고 이들을 모두 京師로 둘려보냈다. 還京하던 中途에서 이들은 刺客을 만났으나 被害는 입지 않았다. 그 刺客을 사로잡은 程尚書는 그를 풀어주며 돌아가 農業에 힘쓰도록 타일렀다. 이에 感激한 刺客은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請者에게서 받은 바 三千兩을 내놓았다. 이것을 通하여 그殺人請負의主人公이 바로 인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인중의 그러한 것을 예상치 않은 바 아니었으나 막상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새삼 놀라고 가슴 아파하였다. 소씨의 行惡은 繼續되었다. 그녀는 程兵部의 아내인 장소저를 불러다 놓고 害하려 하였다. 그때 현운이 마침 그곳에 왔다가 그 지경을 보고 태부인에게 알리어 그 고비를 넘겼다. 소씨는 平素에 程尚書의 아내인 이소저에게 產氣 있으면 꼭 알리도록 당부했었다. 이소저는 그 숨을 어기지 못하여 그 때를 맞추어 알렸다. 이때 소씨는 侍女 열섬을 명하여 新生兒를 궤에 넣어 버리게 하는 한편 다른 新生兒를 求하여 바꾸어 두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식구들은 강보의 아이를 보고 이상히 생각하였고 교지에서 돌아온 程尚書도 新生兒가 전혀 자기를 담지 않음을 이상스레 여겼다.

京師에 돌아온 三公子는 그간 밀렸던 公事로 조공 이공등에게 인사하

기 조차도 바빴다. 이들을 만난 조금오는 자기가 지난번 소씨에게서 당한 바 있고 또 이번에 장소저의 飲毒事件을 알고 있던 터이라 걸으로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妻家를 걱정하며 빨리 그 文人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